

“더 높이 더 깊이”

나니아를 통해 나타난 루이스의 사상과 철학

개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루이스는 이야기 형식으로 그의 저서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게 되는 생각의 단편들을 제시한다. 다음의 다섯 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루이스의 사상과 철학의 주요 개념들을 살피며, 그 외의 저서들에서 본 주제에 대해 언급한 바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 루이스 대부분 저서는 여러 번 출판되었기 때문에 페이지 배치는 각각 다르며 이에 따라 발췌문을 구체적으로 찾고 싶은 경우를 위해 장 수 또는 이름으로 지명할 것이다.

첫번째 가르침: “안전하지는 않지만 선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견해)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제8장에서 비버가 수잔에게 아슬란을 설명해 주려고 하자 수잔이 갑작스레 묻는다. “안심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 분이신가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 관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듣고 싶어 할 만한 대답은 “그럼, 그리스도를 뵈러 가는 길은 문제없이 안전하지” 따위의 말일 것이다.

비버가 대답한다. “누가 안전에 관해 언급한 적 있었나? 물론 안전하지는 않지. 하지만 선한 분이시지.”

네 장 후 아이들과 동물들이 드디어 아슬란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루이스는 해설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러나 아슬란에 대해 비버 부부와 아이들은 그분을 뵈게 되면 어떤 행위를 취하거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가끔 이 나라에 와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물이 동시에 선하고도 두려운 존재란 있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균형 잃은 견해를 가진 기독교인들을 위해 루이스가 아슬란의 바로 이런 이미지 즉 선한 동시에 두려운 이미지를 제시한다. 어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경외심만을 받을 분, 즉 두려움만으로 가득한 분으로 착각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해 다시 일깨워줘야 한다.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시며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만 착각한다. 루이스는 이런 사람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부모 보다 확장된 누구에 불과한 분이 아니심을 각인시켜줄 것이다.

본서 마지막 장의 축하식에서 아슬란은 예고 없이 사라지고, 비버가 아이들에게 이르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된다. “그분께서는 늘 왕래하고 계실 것이란다. 언젠가 보이시는가 하면 언젠가 그분을 더 이상 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묶여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물론, 돌보셔야 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 자주 들리시겠지만 그분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자유로우시거든. 길들여진 사자 같진 않으시단다.”

루이스는 『은의자』 첫 장에서 아슬란은 길들여지지 않으며 그 어떤 사람의 통제도 받지 않음에 대해 다시 언급한다. 유스터스와 질은 Experiment House 깡패들을 피해 아슬란에게 나니아로 자신들을 데려가기를 요청한다. 유스터스가 말하듯 그들은 “그분께 일을 시킬” 수는 없다. 그는 질에게 “실로 그분께 부탁 드리기만 할 수 있을 뿐이거든.”이라고 말한다. 이후 제2장에서 목이 타 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질은 위대한 사자가 서 있는 곳 옆에 있는 시내로부터 물을 마시고 싶어한다. 아이가 묻는다. “제가 접근해도 제게 아무런 일이 일어 나지 않게 하실 거라 약속해주세요.”

“약속 하지 않는다”라고 아슬란이 대답한다.- 이것은 당신이 안전하지도, 통제 하에 있지도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Letters to Malcolm) 제 14장에서 루이스는 “안전한 하나님” 또는 “길들여진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논하며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는 세울 뿐만 아니라 낮추기 위해서도 오시는 분이시다.” 그곳에서 루이스는 또한 “순수하게 위로만으로 이루어진 종교를 세우기 위해 어두움의 요소들을 통제로 빼버리는, 모든 희석화된 기독교의 변형들의 빈약함”에 대해 경고한다.

나니아 이야기들에서는 아슬란이 물론 위로와 위안을 주기 위해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책망하시며 권고하시기도 한다. 그는 선한 존재만이 아니라 두렵기도 한 존재시다. 두려운 분일 뿐만 아니라 선한 분이시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어린 시절 루이스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선하지도 두렵지도 않은 존재로 그분을 생각했다.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 첫 장에서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어릴 적 생각이 마치 자동판매기와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 -만약 그가 “의지력으로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시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회고하며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경외심도 두려움도 없이 다가섰었다. 그는 내 머릿속 형상에서 구세주도 심판관도 아닌 마법사에 불과할 뿐이었으며 내가 그분께 요구하는 바를 이루신 후에는- 그분께서 그냥 사라져 주시는 일만 남았으리라고 생각하곤 했었다.”

우리 역시 안전하기만 한 아슬란을 선호했을 수잔처럼, 위로만 하시며 책망은 하나도 안 하시는 하나님을 때로 원한다. 『고통의 문제』 제 3장에서 루이스는 “우리를 정말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이라면 그는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네가 만족되지만 한다면야 무엇이 문제가겠니?’ 우리는 실로 하늘의 아버지 보다는 하늘의 할아버지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어서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단지 이렇게 미소 지으며, 인자하고, 손자들을 예뻐하기만 하며, 훈계하지는 않는 조부모의 모습으로만 구성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바뀌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이스에게 분명했던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결점투성이 인간으로 완성된 작품을 빚어내는 토기장이의 손이란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늘 즐겁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고통의 문제 제3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영광스럽고 덜 험난한 운명으로 지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 더 이상이 아닌 더 적은 사랑을 바라게 될 것이다...

아마, 정말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본성의 충동에 따라 살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훨씬 더 적은 부분만을 구하게 될 것이다 -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힘겨운 훈련을 시키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적은 사랑이 아닌 더 많은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훈계와 위로의 저편에 각 사람 안에 숨겨진 위대한 잠재력을 보았다. 또한 그는 우리 현재 모습과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창조 모습 간에 자리잡은 간극 역시 알아보았다.

『순전한 기독교』 가운데 “대가를 치르다” (“Counting the Cost”)라는 장에서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과감한 초대를 이렇게 보여준다. “ ‘똑똑히 들어라’ 그가 말한다. ‘틀림없이, 나를 허락한다면 너는 온전해질 것이다. 내 손에 너 자신을 맡기는 순간부터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그 이하도 아니며 그 외의 운명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물론 자유의지가 있기에 네가 선택한다면 나를 밀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알아두거라.’”

[토의 문제]

1. 루이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슬란에 비유해서 좋은 분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분으로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때로 어떻게 왜곡되는가? .
3.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두번째 가르침: “이상한 도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루이스의 견해)

『캐스피언 왕자』 제5장에서 어린 왕자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도망 다니면서 미라즈가 내쫓아 숨어서 피난하고 있던 옛 나니아인들 즉 말하는 동물들과 신화적인 인물들을 찾아야만 했다. 캐스피언 왕자가 떠나기 직전 그의 가정교사 -코넬리우스 박사라는 혼혈 난쟁이-가 그에게 특이한 골동품을 건네주는데 그것이 바로 수잔 여왕이 가진 마법의 뿔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마법의 뿔을 건넨다. “이걸 부는 사람이라면 이상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이상할지는 결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단다.”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제10장 중 산타 클로스가 수잔에게 뿔을 선물하는 장면

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빨을 입술로 붙 때면 장소에 상관없이 아마 그 어떤 형태로라도 도움이 올 것이다.” 두 장 이후에 큰 늑대가 공격하자 수잔의 빨이 부른 것은 강력한 유니콘이나 아슬란 군대 가운데 있는 힘센 켈타우로스가 아닌, 태어나서 검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소년 피터였다.

그 도움은 참으로 이상한 도움이었으며 수잔의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피터가 옴으로 수잔과 루시가 구출되었을 뿐 아니라 전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왕이 전투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그가 이튿날 하얀 마녀의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나서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다.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던 캐스피언의 군대는 패배를 거듭 경험하게 되고 7장에서 궁지에 몰린 왕자는 마법의 빨을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와 옛 나니아인들은 피터와 그의 “위대한 군대” 또는 가능하다면 아슬란이 와주기를 기대하지만 코넬리우스 박사는 그들에게 “도움이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른다”고 경고한다.

빨은 실제로 피터와 그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슬란을 불러 오긴 했지만 예상했던 방식대로 오지는 않았다. 페벤시 남매 네 명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들의 첫 방문보다 나이를 겨우 한 살 더 먹었을 뿐이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트럼프킨은 모두에게 자신은 “위대한 전사”들을 기대했다며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캐스피언 왕께 돌아가서 도움이 결국 하나도 안 왔다고 전할 수 밖에 없겠군.”

아슬란은 이전보다 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싸움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루시마저 묻는다. “으르렁거리면서 적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도록 하시면서 오실 줄 알았어요. 저번 처럼 말이에요.”

트럼프킨과 루시가 보인 반응들은 이해할 만하다. 두 번째 나니아 연대기에서 또 한번 빨은 약속한 대로 도움을 불렀다. 그러나 또 한번 그것은 이상한 도움이었으며 예상되었던 바와는 너무 상반되어 처음에는 그것을 도움으로 보기조차 어려웠다. 실제로 『캐스피언 왕자』에서 나타나는 도움의 대부분을 되짚어 볼 때도 이런 이상한 도움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캐스피언 유모의 추방이 코넬리우스 박사의 초대로 이어졌으며 캐스피언의 승마사고를 초래한 폭풍은 트럼프킨과 트러플헨터로 그를 구출시킨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어쩌면 연대기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독특한 도움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서 유스터스가 용으로 변모한 사건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유스터스가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며 자신이 겪어야만 하는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든 사례에서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손길은 자주 예기치 못한 형태로 주어지고 절대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참 후에 돌아 보았을 때에야 그것이 도움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됨을 알려준다.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기도문을 연구하며 제5장에서 루이스는 이런 진리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다루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우리는 가능한 미래의 환란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한 축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선한 것을 어쩌면 너무

나도 통명스럽게 자주 거절해 버린다. 그 순간에 다른 선한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바로 이와 같은 교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함이 얼마나 이상하거나 예기치 못한 형태를 지닐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루이스의 우주 탐험 3부작의 제 2권 페레란드라(Perelandra)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5장에서 여왕이 랜섬에게 바로 이 개념을 설명한다.

누군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숲 속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는 이미 그 마음 안에 기대하고 있는 과일에 대한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열매를 얻게 된다. 네가 원했다면... 한 기쁨은 예측되었던 것이고 또 다르다면 그것은 주어진 기쁨이다... 너는 네가 이미 가진 과일을 생각하는 대신에 네가 원했던 것을 생각하기에 골몰하게 된다. 너는 정말 좋은 것을 거절하게 될 수도 있다. 너는 네가 예상했던 다른 과일을 생각하느라 진짜 과일의 맛을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항구에 계시는 하나님』(God in the Dock)에 실린 「기독교를 향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에세이에서 루이스에게 던져진 질문은 실천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루이스에 의하면 믿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일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는 것”이라 주장한다. 『캐스피언 왕자』에서 발견되는, 이상한 도움에 관한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을 받는 일을 대비해 그것에 대하여 보다 열린 사고로 받아들이며 감사와 경외심으로 그것을 환영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토의 문제]

1.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종류의 ‘이상한 도움’- 오랜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도움인지 알아 볼 수 없었던- 을 받아 본적이 있는가?
2.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기대에 관해 루이스는 어떻게 말할까?
3.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짐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갈 것인가?

세번째 가르침: 유스터스가 용에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루이스의 시각)-제1부

“한때 유스터스 클래런스 스크러브라는 소년이 살았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 값을 하는 아이였다.” 『새벽 출정호의 항해』는 이렇게 시작된다. 유스터스는 그의 용통성 없으며 아는 체하며 잘난 체 하는 성격이 그의 이름이 암시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유스터스 클래런스 스크러브이라는 이름의 어조와 첫 글자들의 조합이 클라이브 스테이

플스 루이스라는 이름과 가지는 유사성은 인물과 창작자 사이에 배후의 유사점들이 많이 있음을 암시한다. 평생 “잭”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자신의 이름을 혐오하던 루이스는 유스터스의 날카로운 지성뿐만 아니라 운동신경이 부족한 면까지 꼭 빼 닮았다. 제1장에서 만나게 되는 유스터스는 에드먼드가 그를 부르는 별명과도 같이 실로 “가장 역겨운 아이”이며 루이스 역시 어린 시절 가운데 한동안 이런 모습이었다고 말한다.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 제4장에서 루이스는 인생 가운데 이 시기를 회고하며 한 때 자신의 모든 행동의 주 동기는 “화려함·잘난 척·유명세를 타는” 것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루이스는 계속하여 자기중심적인 세계로의 타락을 묘사하며 고백한다. “나는 혼신을 다하여 내 자신을 외모 중심적이며, 비열하며, 고상한 체하는 남자로 변모시키기 시작했다.” 『은의 자』 첫 장에서 유스터스는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탄한다. “어머니! 전에는 내가 정말 짜증나는 아이였구나.” 루이스 역시 본인의 유년시절 중 이에 해당되는 시기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데 서슴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잘난체하는 어감을 가진 이름에 이어 우리가 유스터스 클래런스 스크러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그에게 친구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다. 친구가 별로없고 자기중심적이며, 통치하려는 열망에 의해 통치당하는 유스터스의 상황은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슬란은 그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유스터스는 -에드먼드의 이전 상태와도 같이- 비참한 신분으로부터 자비와 구속을 간구하며 울부짖는다. 에드먼드라는 인물과도 그랬듯이 루이스는 또 한번 독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성인 가운데 몇몇은 한 때 최악의 죄인 -유스터스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멸스러운 아이-이었음을 상기시키고픈 심정이었던 것일까.

그에 앞선 악역들, 하얀 마녀나 미라즈처럼 유스터스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결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사실은 루이스의 모든 악역들이 바로 이 자아비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태도들이 얼마나 거칠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아슬란으로부터만 전달 받을 수 있는 자기인식의 능력이 필요하다.

『미국 소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들』(Letters to an American Lady) 가운데 1956년 7월 6일로 쓰인 일자가 적힌 편지에서 루이스는 영적인 소경에 대한 주제를 다루며 묻는다.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고상한 척하며 융통성 없고 재미가 없으며 깡패와도 같이 남을 위협하며 고자질만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가?”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자기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세번째 편지에서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로 하여금 조카 워우드에게, 지목된 인간을 유혹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준다. “한 집에서 살아 보거나 한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훨씬 다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한 시간이나 자기성찰을 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고통의 문제』 제4장에서 루이스는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고 있을 때는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루이스는 지적한다. 오늘의 시

대는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에 관한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 깨달아야 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에서 존 뉴턴은 노쇠함으로 생각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두 사실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언명한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엄청난 구세주이시다.” 현대인 -유스터스는 대표적인 현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은 두 번째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 이전에는 우선 첫 번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에 탑승한 지 채 몇 일이 지나지 않아 유스터스는 주변에 가장 작은 동물을 발견해서 그에게 괴로움을 줄 것을 기뻐하며 계획을 세운다. 이 부분에서 해설자는 유스터스가 리피치프의 긴 꼬리를 손에 묶은 채 공중 돌리기를 한 두 번 정도 시도한 다음에 도망치며 비웃으면 “참으로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얘기해준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시작 즈음에 피터가 에드먼드에게 한 말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 말은 다음과 같다. “넌 항상 너보다 작은 존재를 괴롭히는 걸 참 좋아하더라.”

이는 나니아 도착 후 맨 처음 유스터스가 취하는 행위로써 그 인생의 패턴을 상징한다. 여기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볼 수 있다. 유스터스는 유일하게 이런 종류의 행복에만 익숙한 것이다. 그가 자신의 행복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타인 위에 군림하며 괴롭히며 겁먹게 하는 것이다. 그림 속 배가 움직이면서 중단되기 전까지 그가 루시의 방에서 꾸미고 있던 것 역시 이것이었다. 그가 일상 생활로 돌아가는 시점이다.

『순전한 기독교』 가운데 “새 사람들”이라는 장에 루이스가 쓴 그의 관찰은 다음과 같다. “위대하다 할 만한 폭군과 정복자들은 어찌면 그토록 단조롭게도 똑같은 수가 있을까.” 더 명확히 표현하자면, 폭군과 정복자들-위대하든 미미하든지 간에-은 어찌면 그토록 단조롭게도 똑같은 수가 있을까. 연대기 첫 세 권에서 루이스는, 큰 폭군으로 하얀 마녀를, 작은 폭군으로 미라즈, 그리고 미미한 폭군으로 유스터스를 제시한다. 세 인물이 다 정도는 다를지라도 여러 가지 유사점을 갖는다.

나니아에 끼친 백 년간의 겨울 내내 하얀 마녀의 하루 일과는 어떠했을까? 하루의 체크리스트는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다. 1) 동상 확인해 보기 2) 얼음 왕좌에 앉아 있기 3) 늑대 하인들에게 고함을 지르기 4) 돌 칼 갈고 닦기 5) 크리스마스는 오지 못하게끔 하면서 겨울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6)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하거나 재미를 느끼고 있거나 자기자신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즐기고 있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들이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때까지 괴롭히거나 폭군 행세하기.

유스터스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좋아하는가? 책의 첫째 쪽에서 독자들은 그가 벌레들을 죽인 후 종이 카드에 핀으로 꽂아 놓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벌레들뿐만이 아닌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에 더하여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유스터스가 그 자체로 좋아하는 과목이란 없으며 단지 점수가 더 안 좋은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만 그 과목에 관심을 쏟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녀, 미라즈, 유스터스 모두 폭군들로서 유일하게 느끼는 행복이란 남에게서 빼앗는 것에 머무를 뿐이다.

제2장에서 독자들은 “그 어떤 것도 유스터스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모의 자녀양육법, 그가 다녔던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하며 행동하기로 선택한 패턴들로부터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유스터스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으며 어떤 선한 것도 그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그의 시각, 즉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는 그의 시각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없는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다. 스스로 연민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 어떠한 배려도 불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마치 『마지막 전투』 제13장에서의 난쟁이들과 거의 흡사하기도 하다. “그들의 감옥은 바로 그들의 생각이다” 아슬란은 난쟁이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있기를 선택한다. 누군가 자신들을 속일까 봐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새벽 출정호의 항해』 전반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유스터스는 『마지막 전투』 속 난쟁이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아슬란으로부터 도움이 닿지 않는 곳으로 향하는 길에 유스터스는 서 있다. 루이스에 의하면, 그를 내버려두게 되면 유스터스는 그들이 다다르게 되었던 곳과 같은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아직 그 지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유스터스는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 아슬란께서 그를 불러왔던 것이다.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말이다.

이야기 전반부에서 알게 되는 유스터스는 과연 그 만한 뉘앙스의 이름을 받기 마땅한 자였다면, 후반부에서는 그가 결코 받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 바로 은혜다. 은혜를 통해 유스터스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친 인생의 실체와 빠져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은혜를 통해 그는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가 그것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일도 없었으며, 그가 전혀 받을 자격도 없는 은혜인 것이다.

[토의 문제]

1. 왜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그 중 유스터스는 전혀 자신의 지독한 결점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2. 어떤 사람들은 수년을 이런 약점을 지니고 다니다가 어떻게 결국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일까?
3.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다가 눈을 뜨는데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이 고통을 선물로 또는 은혜로 여기는 것은 합당한 것인가?

네번째 가르침: 유스터스가 용에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제2부

피노키오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이 불순종과 반항을 상징하는 나귀로 변한다. <미녀와 야수>에서도 주인공이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기 위한 변화를 거치게 된다. 『새벽 출정호

의 항해』 제6장에서 유스터스는 용의 굴속에서 “욕심으로 가득한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잠 들게 된다. 눈을 떠보니 그가 취하고 있던 이기적인 태도를 닮은 용(龍)으로 어느덧 변모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고통의 문제』 제6장 가운데 잘 알려진 부분에서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환란을, 즉 유스터스·피노키오·야수가 경험하는 종류의 환란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설명한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되고 있는 한 자기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죄와 과오가 심할수록 “그것들을 더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고 루이스는 설명한다.

그러나 고통은 다르다. 하나님은 쾌락에 속에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신다.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아시며 그 분 안에서만 행복은 찾을 수 있음을 아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신 할 만한 안식처가 있는 때는 말이다. “우리만의 인생”이란 상태에서 만족될 때 우리는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리려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최선의 행위를 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만의 인생”이 덜 만족스러워지도록 만드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란 있을까?

유스터스가 겪는 고통 즉 소년의 팔에 끼웠던 아주 작은 금팔찌로부터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용의 호수에 비친 자신의 참혹한 형상을 들여다보게 되는 고통이 아슬란의 메가폰이 되었다. 그것은 내면의 소리를 깨우는 그분의 음성에 귀먹었으며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던 한 명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가 된 것이다.

『새벽 출정호의 항해』 한 장 뒤에 에드먼드는 일어나서 어두운 사람의 형상이 해변을 거니는 모습을 본다. 이는 바로 다시 소년의 몸으로 변한 유스터스였다. 그러나 유스터스가 겪은 변화란 너무나 극적이어서 에드먼드는 그를 처음에 그만 캐스피언으로 착각한다. 어쩌면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새롭게 태어난 유스터스가 젊은 왕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 대해 많은 바를 시사한다.

유스터스를 알아보지 못한 에드먼드의 실수는 이해될 만 하다. 유스터스는 더 이상, 이전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원래 계획되었던 자기 모습이 되었으며 이제야 진정으로 유스터스가 된 것이다. 유스터스는 그의 대변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아니 그의 말을 빌리자면, 용의 모습을 벗어나게 된 그의 이야기를 에드먼드와 나누게 된다.

유스터스는 꿈과도 같았던 아슬란과의 만남과 산 꼭대기의 정원으로서의 여정에 대해 설명한다. 그곳에서 아슬란은 유스터스에게 한 우물을 보여주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옷을 벗고 목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입은 옷이 없는 용의 모습을 한 유스터스는 이것을 비늘과도 같은 자신의 피부를 마치 뱀처럼 껍질을 벗으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에 그는 용 껍질 한 층을 벗겨낸다. 그리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방금 벗은 피부 아래 또 다른 피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유스터스는 에드먼드에게 그 다음으로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 루이스가 이를 통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발채부분을 보다 치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스터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혼잣말로 뭐 괜찮아 하고 중얼거렸어. 다만 첫 번째 껍질 안에 좀더 얇은 껍질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벗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다시 찢고 벗기고 해서 속 피부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 밖으로 나와 그것들을 먼저 둔 껍질 옆에 내려 놓았어. 그러고는 몸을 씻으러 다시 우물로 내려갔지”

“그런데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야. 나는 ‘갑소사, 도대체 몇 번씩 껍질을 벗겨야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한시라도 빨리 내 발을 씻고 싶었거든. 그래서 먼저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껍질을 벗겨낸 뒤 거기서 다시 걸어 나왔어. 그런데 물에 나를 비춰 본 순간, 그것 역시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러자 사자가 말했어. ‘네 옷은 내가 벗겨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말을 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사자 발톱이 너무 무서웠지만 그 때는 거의 포기해 버린 상태나 다름없었지. 그래서 그냥 등을 바닥에 대고 가만히 누워 사자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어”.

유스터스가 용의 성품을 몇 겹 스스로 없애는 것에 어느 정도 성공적임을 루이스가 루리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유스터스가 부분적으로 스스로 “옷 벗기”를 할 수 있다 해도 어디까지나 부분에 머무를 뿐이다. 그는 첫 번째 껍질을 벗은 후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을 벗었다. 이로부터 루이스가 시사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다.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얼마 정도는 스스로 고칠 수 있으나 충분한 정도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루이스가 유스터스에 대해 보여주는 바로는 그가 표면에 있는 피부는 고통 없이 어찌면 쉽고 자연스럽게 벗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아슬란의 도움도 필요 없다. 하지만 보다 깊은 껍질들은 정확히 반대일 것이라는 것이다. 루이스는 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는 노력들은 제한적으로 성공을 맞볼 수도 있지만 문제의 핵심에까지 파고드는 성공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더 그리브스에게 보낸 C S 루이스의 편지』에서 루이스가 기록한 자신의 영적인 변신에 관한 이야기는 실로 감동적이다. 이것은 용 껍질을 수 겹 제거하려 한 유스터스의 시도를 정확히 반영한다. 쓰인 일자가 1930년 1월 30일로 적힌 편지에서 루이스는 “자주 저지르기 쉬운 죄악”인 교만과의 씨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가진 성품의 여러 가지 터무니없기도 하며 형편없는 사실들을 알아내버렸다... 끝내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자기 애착과 자기 자량이 끝이 없구나.”

『순전한 기독교』의 “믿음”의 장에서 루이스는 변신의 과정에 대해 이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며 한 편으로는 “늘 이전보다 끊임없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도덕적 수고의 길”이라고 기록한다. 여기서 지적하는 점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 모두는 당신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하도록 이끌

어 준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당신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못 합니다.’”

유스터스가 표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완전히 바꾸는 데는 아슬란의 도움이 필요하다. 유스터스가 용으로 머무를 것인가 변신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아슬란은 그의 동의 없이는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유스터스에게 이렇게 이르신다. “내가 너의 껍질을 벗겨내도록 허락해야 한다.” 유스터스가 에드먼드에게 말한다. “그냥 등을 바닥에 대고 가만히 누워 사자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8장에서 스크루테이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쓴다. “억지로 뺏지는 않고 단순히 구애할 수 있을 뿐 이란다.”

루이스 역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변화의 기회가 늘 존재함을 알아 왔다. 『예기치 못한 기쁨』 제14장에서 루이스는 가재와 갑옷 한 벌 (즉 유스터스의 용 껍질을 개인화한 루이스의 버전들) 의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결론을 내린다. “문을 열 것인지 꼭 닫아 버릴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유스터스가 용으로, 그리고 또다시 소년으로의 변신을 거듭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진다. 루이스가 강조 하고 싶었던 것은 유스터스가 그의 껍질을 벗기리라는 아슬란의 권유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계속 용으로 사는 운명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라는 작은 ‘신’만을 평생 섬기며 자신의 욕구의 법 외 그 어떤 법을 섬기지 않으며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법 말이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역시 영들의 변신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허락이다. 제11장에서 욕망을 상징하는 붉은 도마뱀을 가진 남자를 발견하게 된다. 욕망을 가진 이는 자신의 밝은 천사에게 욕망을 상징하는 붉은 도마뱀을 죽일 권한을 줘야 한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도마뱀을 죽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천사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 내 맘대로 도마뱀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허락해 주겠습니까?” 마침내 남자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허락하고 서술자인 루이스에 의하면 “다음 순간, 유령은 내가 지상에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통의 비명 소리를 내질렀다.”

유스터스의 시험 역시 고통스럽다. 그는 에드먼드에게 말한다. “맨 처음에는 발톱이 얼마나 깊이 파고 들던지, 난 발톱이 심장까지 파고드는 줄 알았다니까.” 처음의 고통스러운 찢음 후에는 보다 끔찍한 고통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껍질 벗겨내기”의 고통이다. 유스터스는 이 경험을 “여태껏 느낀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한 것”이었음을 고백한다. 껍질을 벗긴 후에는 여전히 고통이 한 가지 남아있는데 이는 세 번째 고통인 물(치유의 우물)속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유스터스는 이를 일컬어 “그 어떤 것보다 따가운”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옛 자아를 죽이기 위해 그가 겪는 엄청난 고통을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으랴? 유스터스가 고백한다. “정말이지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 보긴 처음이었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걸 벗겨낸다는 기쁨 때문이었어.” 『고통의 문제』 제6장에서 루이스는 변신 과정

의 고통스러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은 말들로 요약한다. “고통은 괴롭다. 이것이 그 말이 지닌 의미다. 나는 단지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케 된다.’는 옛 기독교의 교리(히 2:10)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이다.” 유스터스는 용으로 변신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그의 영적인 끈고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볼 수 밖에 없도록 떠밀린 것이다.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존 뉴튼은 이렇게 말한다. “한 때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광명을 보았네 내가 그렇게 쓰지 않았나?”. “윌리엄 윌버포스가 동의 하자 뉴튼이 선포한다.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유스터스 역시 이야기 초반부에는 자신의 지독한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새벽 출정호의 항해』 이후에는 유스터스 역시 뉴튼과 같이 선포할 수 있었다. “한 때 길을 잃고 방황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구나” 나니아 연대기 속 유스터스를 통해 루이스는 우리의 죄악의 어두운 모습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 .

토의 문제

유스터스가 용에서 소년으로 다시 변신하게 된 것은 연대기의 전체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이다.

1. 당신은 왜 이 사건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영향력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
2. 루이스는 이런 사건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변화의 과정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

그의 저서를 통해, 루이스는 여러 가지의 비유를 사용해서 누군가의 옛 자아가 죽어지는 과정을 포착한다. 여기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서는,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그는 이전의 낡은 피부를 뜯어내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제시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는 그의 변신을 갑옷을 제거하는 것에 비유한다. 같은 저서의 후반부에서 루이스는 이 과정이 “오랜 기간이 흘러 마침내 녹기 시작” 눈사람과 같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또한 이 과정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죽어지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설명했다.

3. 이 중에 어떤 이미지가 자신이 죽어졌던 경험에 비추어 가장 많이 공감이 가는가? 또는 당신이 제안하고 싶은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가?
4. 루이스가 이 대단한 변화에 있어서 고통이 일부분, 심지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섯 번째 가르침: "구하는 모든 것 찾기" (천국에 대한 갈망에 관해)

『새벽 출정호의 항해』 제2장에서 리피치프는 요람기에 들었던 시를 떠올린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
파도가 잔잔해 지는 곳
의심하지 마라, 리피치프,
네가 찾는 모든 것이,
그 곳 동쪽 끝에 있다.

마지막 장에서 독자들은 이 시의 전반부, 즉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 / 파도가 잔잔해 지는 곳"이라는 부분이 가지는 뜻을 알게 된다. 하지만 루이스는 결국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이라는 어구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는 그다지 많이 언급하지는 않는다. 제2장에서 리피치프조차도 이렇게 인정한다.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 노래의 신비한 힘이 평생 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리피치프는 이야기 나머지 부분에 걸쳐, 자신이 평생 구하며 찾고 있던 바가 개인적인 명예가 아니라, 그 보다 월등한 영광이었음을 알게 된다.

『순전한 기독교』 "희망"에서 자주 인용되는 루이스의 명언을 발견할 수 있다. "내 자신에게 세상 그 어떤 경험도 충족시켜주지 못할 욕망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내가 또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연대기 전체에 걸쳐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이런 열망이 있다.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끝내 돌아가게 될 것일까' 라는 아이들의 궁금증에 교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당연히 언젠가 나니아로 돌아갈 것이란다." 『캐스피언 왕자』에서 아이들이 기차 탑승대에서부터 이동해 촘촘한 숲 안에 놓인 자신들을 발견하자 루시는 먼저 이렇게 말한다. "피터 오빠, 우리가 정말 다시 나니아로 돌아오거나 한 걸까?"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서 에드먼드와 루시의 첫 장면에서 두 아이는 나니아의 배가 담긴 유화를 뻔히 들여다보며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루이스는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었다. 이 장면에서의 에드먼드의 첫 대사는 나니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약 올리기라도 하는 듯하던 말야— 결코 갈 수 없는 데도 왜 나니아 배만을 쳐다보는 걸까?"

나니아를 향한 이런 모든 애타는 마음들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리피치프 또는 다른 인물들이 그토록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루이스는 대답을 결코 명시해주지는 않지만, 나니아가 아닌 현재로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남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영광의 무게」라는 유명한 설교에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한 갈망을 묘사한다. "우주 가운데 우리와는 단절되어 있는 듯 느껴지는 그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요 늘 밖에서 쳐다보아야만 했던 문 안 쪽을 향한 갈망"이라고 그는 표현한다. 『마지막 전투』에서 이런 갈망을 가진 자들만 끝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고통의 문제』 제10장에서 루이스는 이런 기본적인 갈망의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그 갈망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거기서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평생 찾아 온,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모든 것들은 안타까운 섭광 외에는 잡을 수 없고, 마치 고막을 울리고 사라지는 산울림같이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보일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의심

할 여지도 없이 당신은 “바로 내가 그 분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구나! 하고 소리칠 것이다.”

그의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갈망의 대상을 향한 여정을 “경외의 범위” 내로의 여정이라 부른다. 여기서 그는 이를 이렇게 묘사한다. “감각의 그 어떤 대상, 또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필요해하거나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가 있거나 상상 가능한 그 어떤 대상”과도 스스로 동일화 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말이다.

루이스에게 수평선 너머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갈망은 그가 매우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첫 장에서 그는 리틀리, 즉 벨파스트 주변에 위치한 집에서의 어린 시절에 관해 쓰며 그가 방 창문에서 보이는 언덕들의 머나먼 수평선을 향한 욕망의 감정들에 대한 회미한 경험을 묘사한다. 결코 멀지 않았던 산들이 루이스에게는 ‘도달 불가능한’ 것으로 그에게 ‘갈망’을 심겨주었다. 이하 루이스의 설명에 의하면 인생의 여러 다른 순간과 장소에서 느끼게 된 갈망은 가히 말로 담기 어려울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루이스 그 자신도 묻는다. “물론 욕망의 느낌이었지만, 도대체 무엇을 향한 갈망이었는가?” 갈망의 정확한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 갈망은 수평선과 맞닿은 산에까지 이르고 싶은 꼬마아이의 갈망보다 더했으리라. 이후 루이스는 이런 느낌을 천국을 향한 갈망이라 명시할 것이었다.

때로 그것을 놓치기도 하는 리피치프의 경우에는 갈망의 진정한 대상은 그의 명예가 아니라 아슬란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것의 증거는 리피치프의 경우 그에게 명예가 얼마나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늘 리피치프에게 부족할 뿐이며, 그는 항상 변호해야만 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즉시 리피치프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영웅주의 타령에 들어가게 된다.

루이스에 의하면 우리가 부차적인 것을 주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어떤 것에도 늘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영광의 무게』에서 루이스는 “결코 그 어떤 자연적인 행복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순전한 기독교』 중 “희망” 장에서 그는 이 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부분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면 “이 세상에서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한다.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 맺는다. 인간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온갖 종류가 다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들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

루이스는 마땅히 부차적인 욕구여야 할 것을 주요 목표로 변환시키는 경향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부차적인 욕구가 물론 선하며 유용할지라도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설명한다. 즉 그 부차적인 욕구는 진정한 갈망의 “체분의 일종이거나 메아리 또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며,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을 진실된 갈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루이스가 이렇게 결론 내린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새벽 출정호의 항해』 이야기 막바지에서 리피치프는 연대기 시리즈 전편에 이르는 그의 아치형 곡선의 인생을 완성하게 된다. 『캐스피언 왕자』에서 리피치프가 피터에게 말

했었다. “제 목숨은 당신의 명령 하에 놓겠으나 제 명예는 오로지 제 것입니다.” 용감무쌍한 쥐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자신만의 것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점에 이른 것이다. 즉 이전에는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붙잡고는 희생하고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캐스피언 왕자』에서 리피치프는 꼬리란 바로 쥐의 명예와 영광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더 높은 명예와 더 위대한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이다.

『캐스피언 왕자』 막바지에서 꼬리를 잃은 리피치프는 자신의 외모에 스스로 당황해 하며 아슬란에게 고백한다. “부끄럽고 무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꼴사나운 몰골로 나타난 데 대해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슬란은 쥐의 꼬리를 회복시키고 꼬리가 리피치프의 존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회복시킨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리피치프는 그의 검과 함께 자기 존엄성과 명예스러운 외형을 유지시키는 것에 있어서 남아 있던 자존심을 내려놓고 루시로 하여금 “그녀가 항상 해 보고 싶었던 것”을 허락한다. 루시는 그를 자기 품 안에 안으며 그를 쓰다듬는다. 이 행위는 제1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 시점에서 그를 무척이나 불쾌하게 했을 행동임을 독자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큰 파도 저편에서 리피치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는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서술한다. “코러클 배(웨일스와 아일랜드에서 타는, 동그랗고 작은 배-역주)가 점 점 더 빠르게 움직이더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파도의 측면을 타 올랐다.

코러클과 리피치프의 모습이 가장 꼭대기에 머무르는 모습이 순간 보이더니 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 순간 이후로 리피치프를 보았다고 하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가 아슬란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살아있으리라 믿는다.” 조나단 로저스는 리피치프의 마지막 항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 자신을 잊었으며, 세상을 잊었으며, 이미 경험한 모든 것들을 잊고 그는 모든 것의 심장인 아슬란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

루이스는 『마지막 전투』에서 리피치프를 마지막으로 출현시키는데, 루시와 나머지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금문의 문지기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를 묘사한다. 폴린 베인즈의 아름다운 그림에서 리피치프의 왼쪽 발이 “긴 검 위에 놓인” 모습으로 함께 그려졌다. 이 검은 바로, 이 장면에서 남겨진 것이 아닌 아슬란이 주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루이스는 또 한 번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면 부차적인 욕구가 저절로 충족 받게 됨을 암시하는 듯하다. 또 리피치프의 경우 개인적 명예 추구를 포기하면 월등히 위대한 종류의 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루이스는 독자들에게 세계의 끝 너머에 있는 나라에 관한 갈망을 들여다 볼 만한 창 두 가지를 더 설명한다. 『마지막 전투』 제15장에서 주얼이 다른 인물들과 함께 땅의 경계선에 이르며 감탄한다. “드디어 귀향했구나! 진정 나라로 되돌아왔도다! 내가 속한 곳이로구나. 평생 갈구하던 나라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구나. 옛 나니아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이유는 그것이 때때로 바로 이 나라의 모습을 내 비쳤기 때문이구나.”

두 번째 창과 관련하여 『새벽 출정호의 항해』 막바지에서 두 번째 쪽에 실린 루시의

대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그와 에드먼드가 다시는 나니아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게 되자 흐느끼며 (아슬란에게) 다음과 같이 외친다. “나니아 때문이 아녜요, 아슬란 님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아슬란님을 만나지 못할 텐데 아슬란 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살죠?” 여기서 암시되는 것은 나니아에 대한 아이들의 갈망, 그리고 아슬란의 나라에 관한 리피치프의 갈망 속 깊은 뿌리에는 바로 아슬란 당신을 향한 깊은 그리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교할 만한 점은 바로 천국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리라. “천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 때문 이예요.”

토의 문제

이번 마지막 장에서는, 리피치프가 요람에 있을 때 들었던 예언이 성취되었다. 즉 그의 껌을 뒤로하고 거대한 파도를 넘어 그가 찾던 모든 것을 찾게 될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향해하게 된다.

1.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리피치프와 같이- 천국의 주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2.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한 리피치프 처럼- 더 부차적인 욕망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가?
3. 우리의 천국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분리되어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본향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를 향한 갈망의 한 측면인가?

데이비드 브라운(David Brown)은 애즈버리 대학(Asbury University)의 영어교수이며, Inside Nania(2005), Inside Prince Caspian(2008) 그리고 Inside the Voyage of the dawn Trader(2010) 의 저자이다.